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패싯 분류 체계 연구*

- 1950~1979년 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Korea-related Records (1950~1979) Collected from UNESCO Archive

박 도 영 (Do Young Park)**
오 경 묵 (Kyung-Mook Oh)***

초 록

본 연구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소장 자료 중 한국과 관련하여 수집한 기록물 1,136건(1950~1979년)을 대상으로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한 것이다. 기록물의 제목과 색인어에서 명사 1,601개를 추출한 뒤 임시로 설정한 기본 범주를 기초로 하여 용어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였고, 결과로 도출된 패싯 요소들을 10개의 기본 패싯과 38개의 하위 패싯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패싯 요소를 정의하고 패싯별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패싯의 배열 순서를 지정하고 기호를 부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as a new classification scheme for 1,136 records (1950-1979) collected from UNESCO which are related to Korea. After extracting 1,601 nouns from the titles and index terms of the 1,136 records, they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e temporarily set fundamental categories. Through repeated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the last category names were derived as facets. As a result, the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Korea related records are structured into 10 basic facets and 38 sub-facets.

키워드: 유네스코 기록물, 기록 분류, 패싯, 패싯 분석, 패싯 분류 체계
UNESCO Archives, Records Classification, Facet, Facet Analysis,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2017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dypark8871@gmail.com)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moh@sm.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6월 2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99-118,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2.099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United Nations; UN) 산하의 전문기구이다. 유네스코는 한국 전쟁 후의 복구와 재건 사업에서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함께 교과서 인쇄 공장 건설, 공동교육사절단 파견, 외국어 교육과 기술 교육 지원 등 대한민국의 교육 재건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진행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져 유네스코에서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소장 기록들은 유네스코의 원조, 한국에서의 역할, 유네스코와 한국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한 연구에 1차적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이란 유네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한민국과 관련한 내용을 가진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다. 기록물의 수집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3개년(2016.12~2019.12) 과제 사업으로 진행한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인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UN 및 산하기구를 중심으로」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었다(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2020).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함에 있어 유엔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하며(강현민 2017), 특히 한국의 해방과 건국,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재건의 현대사에서 유엔 관련 기구들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1948년부터 1979년까지 생산된 관련 외교 문서와 주요 실무급 문서들의 원문을 유엔과 유엔 산하기구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록들은 번역과 목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지식 수요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제공될 계획이다(오경묵, 이지수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분류 체계를 고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관 기록은 원소장처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 분류의 경우 새로운 논리적 질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경우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기록만을 수집했기 때문에 전체 중 일부가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기록물의 양, 주제, 생산 연도, 내용 등이 전체 기록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한정적인 수집 기록물을 기존의 체계에 따라 분류한다면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과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록물 분류의 경우 수평적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설문원 2011). 즉, 원소장처인 유네스코의 계층적 분류 체계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수집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수평적 분류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수집해온 한국 관련 기록물의 효과적인 분류와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분류 체계로 패싯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카이브에서 수집해온 한국 관련 기록물 1,136건의 원문과 서지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기록물의 특성과 패싯 분류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에 패싯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패싯 분류 체계의 설계는 패싯 분석 후 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패싯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체계를 분석하여 패싯 분석을 위한 임시적인 기본 범주를 설정하였다. 둘째, 기록물의 제목과 색인어에서 명사 1,601개를 추출한 뒤 1차적으로 임시 기본 범주에 분류하였다. 셋째, 1차 분류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인 분류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패싯 요소를 10개의 기본 패싯과 38개의 하위 패싯으로 구조화하였다. 다음으로 패싯 분류 체계의 설계를 위해 각각의 기본 패싯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패싯의 배열 순서를 정의하였으며, 기호를 부여하고 인용 순서를 정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설계된 패싯 분류 체계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1.3 선행 연구

패싯과 패싯 분석의 개념은 1933년 S. R. Ranganathan이 발간한 콜론 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CC)에서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Ranganathan의 콜론 분류법은 도서관 분류 체계에 패싯 분석을 도입한 패싯 분류 체계로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Spiteri(1998)는 Ranganathan과 영국의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이하 CRG)이 제시한 패싯 분석 이론을 종합하여 단순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Spiteri의 단순화 모델은 패싯 분석 체계를 설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one-step' 도구와 패싯 분석 이론의 학습을 위한 유용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패싯 분류 체계의 설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Broughton과 Slavic(2007)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을 목적으로 한 패싯 분류 체계의 개발 원칙과 그 과정을 제시하였다. 패싯 분석이 특정 주제 분야에서 논리적 조직을 위한 방법론으로 작용함을 지적하며, 통제 어휘 구축을 위한 패싯 분석의 가능성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방법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ickery(1960)는 패싯 분류법 설계 과정을 제시하며 패싯 분석이 용어의 선택, 주제 접근점의 배치, 그리고 표기법의 할당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패싯 분석 과정과 패싯 분류법의 개발 간에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지적하였다. 즉, 패싯 분류를 거치지 않고서는 패싯 분류법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La Barre(2010)는 Vickery(1960)의 패싯 분류법 설계 과정을 패싯 분석의 단계와 분류 체계 구축의 단계로 구분 및 정의하며 최종적으로 7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7단계 과정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는 패싯 분석, 3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패싯 분석과 분류법 설계의 혼합,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6단계와 7단계는 패싯 분류법 설계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는 패싯 분류 체계 구축의 과정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패싯 분류 체계의 개발에 관한 실천적 연구로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옥남, 오삼균, 김세영(2009)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하향식 방법으로 기존의 분류 체계를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구조와 용어를 추출해냈다. 다음으로 상향식 방법을 통해 여러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분석하고 관련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용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13개의 기본 패싯을 제시하였다. 심지영(2014)은 방송 자료의 내용 구조화에 패싯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뉴스 및 시사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적 유형의 방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키워드로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패싯 구조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임지훈, 박태연, 김수정(2017)은 재난안전정보를 대상으로 패싯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7개의 기본 패싯과 하위 패싯으로 구성된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472건에 시범 적용한 분류 결과를 제시하며 패싯 분류 체계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주장하였다. 정연경(2013)은 한식 관련 정보의 패싯 구조화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한식 관련 분류체계와 문헌 분류표에서의 관련 표목을 범주화하고, 한식 관련 국내서 776권의 목차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디렉토리에서 한식 관련 항목명 23,740건을 수집하고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16개의 기본 패싯과 85개의 하위 패싯을 구성하였으며 패싯의 조합 순서 또한 제안하였다.

기록물을 대상으로 패싯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성효주와 이해영(2017)은 대통령 기록물의 패싯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검색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검색 도구로서의 패싯의 효과에 주목하며 대통령 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외의 대통령 기록관 웹사이트의 검색 옵션,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의 이용자 검색 용어와 정보 공개 청구 용어, 기술요소, 메타데이터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대통령 기록의 특성에 기반을 둔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박성우와 정대근(2017)은 패싯을 기반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기록물의 주제 분석을 위해 기록물의 제목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명사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기록의 제목에서 추출한 명사의 경우 주제를 포함하기보다는 자료 유형, 매체 유형, 출처 등 다양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정확한 주제 분석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본 패싯의 배열 순서를 '출처-자료유형-시기-매체유형-주제어'로 설정한 출처 및 자료 유형 중심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패싯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정보를

대상으로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 대상의 성격에 따라 패싯 요소와 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내용 구조화와 온라인 환경에서 검색 시스템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되었다.

2. 수집기록물의 성격과 패싯 체계 적용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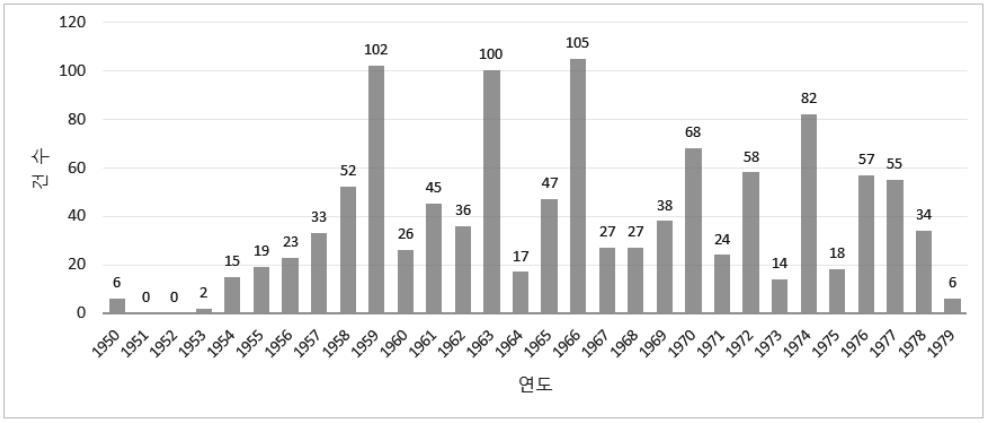
2.1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은 전후 교육 재건 사업에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기록물이다. 수집된 기록물의 양은 총 1,106건으로 기존의 체계에 따르면 54개의 철(file)로 구성되어있다.

기록물의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UNESCO Digital Library)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집해오는 방식이다.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유네스코 소장 자료 중 특별히 중요한 기록과 출판물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관련 기록물의 경우 연구 보고서, 연감, 단행본, 정기 간행물의 유형을 가지는 기록이 수집되었다. 이때 제공 자료 단위를 철로 인식하고 한국과 관련된 부분 또는 세부 내용 부분을 건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연감(Yearbook)의 경우, 하나의 연감 속에 '한국' 항목에 해당하는 기록만을 수집하였으며, 이때 연감은 철로, 한국 항목의 기록은 건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는 29개의 철로 구성된 149건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파리 소재의 유네스코 아카이브(UNESCO Archive)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경우이다. 사전 탐색을 통해 유네스코 아카이브에 한국과 관련된 기록이 소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유네스코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유네스코 아카이브 기록물의 경우 하나의 업무 또는 주제 단위의 범주를 가진 철 안에 다양한 유형의 기록 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미 있는 기록만을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철은 '1959년 기술 원조 프로그램', '1960년 기술 원조 프로그램'과 같이 조직되어 있고, 그 안에 관련 내용의 각종 행정 문서, 편지, 회의 내용, 업무 보고서 등이 각각의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 아카이브에서는 총 25개의 철로 구성된 987건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수집 방법에 의해 유네스코에서 수집된 한국 관련 기록물은 모두 디지털 이미지 파일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집된 한국 관련 기록물의 자료 유형은 크게 보고서(report)류, 편지(letter)류, 단행본(book), 정기 간행물(periodical), 문서(document)류, 사진(photo)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한국 관련 기록물은 한국의 유네스코 회원 신청(1950년 2월 8일) 관련 기록부터 한국 전쟁, 전후 재건, 본격적인 교육・사회・산업・경제 발전 사업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기록물이 생산된 시기는 1950년부터 1979년까지로 나타난다. 기록물 1,136건에 대한 연도별 기록물 건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네스코 수집 기록물의 연도별 기록 건수

2.2 패싯 분류 체계 적용 근거

본 연구에서 패싯 분류 체계의 적용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 기록물의 효과적인 분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정리 및 분류 방식은 출처에 따라 집합적 기록물 군(Group)을 설정하고, 기록이 생산되고 보관된 순서인 원질서를 반영하여 계층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수집 기록물의 경우 일부만을 수집해오기 때문에 원소장처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존재한다. 원질서를 복원한다고 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체계 속에서 상세하고 정확한 분류는 불가능하다. 원질서가 흩어진 상황에서 계층적 분류 또한 무의미하다. 이때 패싯 분류 체계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수평적인 주제 중심의 분류 체계로 제안될 수 있다. 패싯 분류 체계는 대상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 패싯을 조합함으로써 개념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합성식(Analytico-synthetic) 분류 체계이다. 이는 기존의 열거식 분류 체계는 주제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주제를 일일이 지정하여 열거한 반면, 패싯 분류 체계는 주제의 기본 요소인 패싯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합성하여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때 패싯 요소 도출에 기록의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분류 체계를 설계할 수도 있다.

둘째, 주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분류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수집 목적은 기록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접근에 있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 맥락보다는 기록의 내용 또는 주제가 이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접근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싯 분류 체계는 복합적이고 유연한 주제 표현이 가능한 분류 체계이다. 각각의 패싯들은 하나의 주제 접근점으로 역할하며 기록의 주제 표현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주제 접근 기회 또한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기록의 복합적인 주제 표현에 유용하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경우 하나의 기록에 순회 전시회 개최 도시들, 교

사와 학생이 참여한 토론회, 출판 도서 리스트와 예산 등 복합적인 주제 또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주제들은 모두 기록에 대한 접근점으로서 중요하며 특정 주제만을 우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패싯 분류 체계의 경우 다수의 패싯을 조합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주제의 출현에 유연하다. 수집 기록물의 경우 같은 기관에서 추가적인 수집이 진행되거나, 주제 또는 기관을 확대하여 새로운 기록물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구축한 분류 체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진 기록이 포함되어도 패싯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주제라는 것도 이미 표현된 기본 개념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서 대부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해성 2003). 패싯 분류 체계는 유연한 추가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편입시켜 분류 체계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온라인 환경에서 강력한 정보 검색 도구의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 수집 기록물의 경우 수집의 과정에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검색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패싯 분류 체계는 강력한 정보 검색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패싯 분류 체계의 패싯 구조는 이용자들에게 주제 브라우징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의 주요 특성을 구조화한 패싯 구조를 통해 기록물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지식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분류 체계가 정보 자료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작용하는데 이때 패싯 구조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박지영 2010). 또한 패싯 요소의 합성을 통해 검색어 또는 색인어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패싯 분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용어 통제와 용어간의 계층화를 활용하여 시소러스 또는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에 패싯 분류 체계를 적용 및 제안하고자 한다. 기록물의 성격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기록물의 이용과 이해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패싯 분석

본 연구에서 패싯 분석은 첫째, 임시 기본 범주 정의, 둘째, 용어 수집, 셋째, 분류와 범주화, 넷째, 패싯 요소 도출 및 구조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1 임시 기본 범주 정의

패싯 분석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기본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체계는 Ranganathan의 5가지 기본 범주,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패싯 내비게이션 요소 그리고 유네스코 시소러스의 최상위 범주이다.

첫째, Ranganathan(1960)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주제를 분류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

본 범주를 제시했다. 이 기본 범주는 모든 분류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Ferreira, Maculan, Naves 2017). 다섯 가지 기본 범주는 각각 'Personality(개성)', 'Matter(물질)', 'Energy(에너지)', 'Space(공간)', 'Time(시간)'이다. Lancaster(1991)의 정의에 따르면 'Personality(개성)'은 '그 자체의 것'으로 본질을 나타내는 속성을 말한다. 'Matter(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와 같은 물질을 말한다. 'Energy(에너지)'는 실행하거나 실행되는 동작을 의미한다. 'Space(공간)'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Time(시간)'은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둘째,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보조 도구로 '패싯 내비게이션(Faceted Navigation)'을 구축하고 제공한다. 패싯 내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키워드 검색 후 검색결과 목록을 훑어보면서 점진적으로 탐색을 좁히거나 넓히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통합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브라우징을 하면서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검색방식이다(이원경 2015). 주로 검색 화면 좌측에 위치하며 다양한 패싯 요소에 따라 분류된 리스트를 검색자에게 보여주면서 단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완해주는 검색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패싯 내비게이션 요소 중 검색 결과 제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외하고 주제와 관련된 요소는 'Topic(주제)', 'Geographic Topic(주제-지리)', 'Person as Subject(주제-인물)', 'Corporate Body as Subject(주제-단체)', 'Meetings as Subject(주제-회의)'로 총 5개이다.

셋째, 유네스코 시소러스는 유네스코 소장 자료의 주제 용어들에 대한 통제되고 구조화된 목록이다. 총 7개의 최상위 그룹과 하위에 88개 그룹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 문화, 과학, 사회 등 유네스코 전체 자료의 주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유네스코 시소러스의 최상위 그룹은 유네스코 자료의 모든 주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총 7개로 구성된 최상위 용어 그룹은 'Education(교육)', 'Science(과학)', 'Culture(문화)', 'Social and human sciences(사회・인문과학)',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정보・통신)', 'Politics, law and economics(정치, 법, 경제)', 'Countries and country groupings(국가 및 국가 그룹)'이다.

Ranganathan의 PMEST를 기준으로 유네스코 디지털 아카이브의 패싯 요소 중 주제 관련 요소들과 유네스코 시소러스의 최상위 용어 그룹을 비교 및 종합하였다.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정의와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 유사성을 가지면 대등한 요소로 파악하였으며, PMEST에 의미가 소속되는 경우는 해당 범주의 하위 요소로 판단하였다(〈표 1〉 참조).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의 패싯 분석을 위한 임시적인 기본 범주는 12개의 기본 범주와 하위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기본 범주 중 '에너지'와 '지리' 범주는 각각 2개의 하위 범주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싯 분석을 위해 설정한 임시 기본 범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3.2 용어 수집

패싯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영역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야한다. 본 연구는 기록물의

〈표 1〉 분석 대상 자료의 기본 범주 비교

Ranganathan	유네스코 디지털 라이브러리 패싯 내비게이션	유네스코 시소러스 최상위 범주
개성(P)	주제	교육
		과학
		문화
		사회・인문과학
		정보・통신
		정치, 법, 경제
	인물	-
	단체	-
물질(M)	-	-
에너지(E)	회의	-
공간(S)	지리	국가 및 국가 그룹
시간(T)	-	-

〈표 2〉 임시 기본 범주

기본 범주	하위 범주	정의
교육	-	교육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과학	-	과학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문화	-	문화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사회・인문과학	-	사회 과학 또는 인문 과학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정보・통신	-	정보 및 통신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정치, 법, 경제	-	정치, 법, 경제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인물	-	인물명 또는 인물의 직위 및 집단
단체	-	단체명 또는 단체의 종류
물질	-	물질적인 요소, 시설, 자원 또는 재료.
에너지	회의	정기적 또는 일시적인 회의
	기타 활동	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지리	국가	국가명
	국가 그룹	국가들의 그룹
시간	-	일, 월, 연도와 같은 시간적 요소

내용 및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용어의 수집을 위해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에서 직접 용어를 추출하였다.

용어 수집은 기본적으로 기록물의 제목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의 경우 문헌과 달리 제목에서 내용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약하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건명을 살펴보면 편지의 경우 'Letter from Patrick H. Chang to Rene Maheu', 보고서의 경우 'Report on the Progress of Unesco Publications'와 같이 내용을 표현하기 보다는 단순히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제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을 대상으로 한 박성우와 정대근(2017)의 연구는 기록의 제목에서 용어를 추출하였지만 기록의 주제 및 내용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명시하였다. 이은욱과 박희진(2018) 또한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대한 패싯 분석의 과정에서 기록명은 일부 또는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풍부한 용어 수집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추가적으로 기록의 도록과 기술 요소를 분석하여 용어를 보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건 단위로 부여된 색인어에서 추가적으로 용어를 추출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일부 기록물의 건명에서 추출한 용어와 부여된 색인어에서 추출한 용어를 비교한 것이다. 건명에서 추출한 용어보다 색인어에서 추출한 용어가 기록의 내용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어의 추출은 자연어 텍스트로 존재하는 기록물의 제목과 색인어를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한 다음 그 중에서 명사를 추출하였다. 이때 형태소 단위로 분석할 경우 의미가 해체되어 버리는 명사구는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물의 철과 건의 제목에서는 중복을 제외하고 명사 653개가 추출되었으며 색인어의 경우 명사 1,324개가 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명사 1,977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3 분류 및 범주화

추출한 명사는 1차적으로 임시 기본 범주에 분류되었다. 명사 중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분류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UNESCO'와 'Republic of Korea'는 거의 모든 기록물에

〈표 3〉 기록의 건명과 색인어에서 추출한 명사 예시

(1)

기록물 건명	Determination of Allocation to Education within the development plan
건명에서 추출한 명사	determination, allocation, education, development, plan
색인어에서 추출한 명사	unesco, bangkok, joo_nam_kim, development, karachi_plan, industries, income, expenditure, korea, trade, allocation

(2)

기록물 건명	participation programme for 1977-1978
건명에서 추출한 명사	participation, programme, 1977, 1978
색인어에서 추출한 명사	youth, training, participation, programme, purpose, aid, worker, korean_unesco_youth_centre, korean_national_commission_for_unesco

(3)

기록물 건명	Aims of the Project
건명에서 추출한 명사	Aim, Project
색인어에서 추출한 명사	unesco, project, inchon, expert, college, aim, program, development, project

등장하고 해당하는 용어이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76개를 제외한 명사 1,601개를 기본 범주 하에 분류하였다. 특히 기록물 건명에서 추출한 명사 중 'report', 'letter' 등 기록물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경우 해당되는 기본 범주가 없어 '자료 유형'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1차 분류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1차 범주화 결과

결과 / 기본 범주	용어 수
교육	30
과학	63
문화	70
사회・인문과학	21
정보・통신	33
정치, 법, 경제	137
인물	352
단체	189
물질	101
에너지	414
지리	102
시간	52
자료 유형	37

임시 기본 범주에 분류된 용어들은 최종적으로 분류와 범주화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분류 및 재범주화 된다. 분류와 범주화의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하나의 용어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에는 용어가 가지는 표면적 의미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school(학교)'는 교육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의미하지만 '교육'이라는 주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때 표면적인 의미를 선택하여 '기관'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추후 패싯의 합성을 통한 주제 표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용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한다. 정확한 분류를 위하여 실제 원문에서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publication'의 경우 '출판물'이라는 자료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용례에 따라 '출판'이라는 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셋째, 특정한 의미를 가진 명사구는 의미를 쪼개지 않고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participation programme'의 경우 유네스코의 회원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주요 사업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므로 하나의 명사구로 취급하였으며, programme의 일종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이처럼 유의미한 명사구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해당 용어의 하위로 분류하였다. 넷째, 유네스코 시소러스의 계층과 용어를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지리학(Geography)'의 경우 유네스코 시소러스에서 '과학'의 'Geography and oceanography'라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에 분류하였고, '역사(History)'는 '문화'에 속해있어 그에 따라 분류하였다.

3.4 패싯 요소 도출 및 구조화

반복적인 분류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패싯을 도출하고 선택하기 위한 지침은 Spiteri(1998)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첫째, 패싯은 다른 패싯과 확실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패싯은 분류체계의 목적, 주제,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패싯은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넷째, 분류체계에 사용된 패싯은 분류체계

에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패싯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특성만을 반영해야한다. 여섯째, 패싯은 분류체계의 주제 분야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해야 한다(정연경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싯을 유네스코 시소러스의 용어와 통일시킴으로써 어휘에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지침에 따라 패싯을 도출하고 10개의 기본 패싯과 38개의 하위 패싯으로 구조화하였다(〈표 5〉 참조).

〈표 5〉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1950~1979)의 패싯 구조

기본 패싯	하위 패싯	소속 범주 예시
Field (주제 분야)	Education(교육)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international understanding, literacy 등
	Economy(경제)	finance, labour, industry, agriculture 등
	Culture(문화)	art, language, history, cultural heritage, literature, religion, folklore, philosophy 등
	Science(과학)	natural sciences, oceanography, biology, physical science, geography, medical sciences, mathematics 등
	Social science(사회과학)	human settlements, social systems, social problem, psychology 등
	Law(법)	resoluti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등
	Communication(통신)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등
	Politics(정치)	political movement, international relations, policy 등
	Information(정보)	information, library science
	Technology(기술)	technology, engineering
	Human science(인문학)	humanities
Organization (단체)	Organization(기관)	institution, association, center 등
	Commission, Committee, Council(위원회)	commission, board, committee, council
	Member states(회원국)	member states, membership
	Government(정부)	government, authorities
Person (인물)	Group of people(인물 집단)	specialist, worker, administrator, educator, participant, disability 등
	Person name(인물명)	Rene Maheu, A Balcan, H Reiff, Messrs R Brain, Patrick H Chang 등
Material, Equipment, Resource (재료, 설비, 자원)	Material(재료)	publication, data, list, document, statistic, survey, form 등
	Equipment & Facility(설비)	equipment, facility, machine 등
	Resource(자원)	resource, energy resource 등
Action (행동)	Assistance & Aid(원조)	assistance, aid, contribution 등
	Development(개발)	development, procedure, production, implementation, reconstruction, construction, creation 등
	Participation(참여)	cooperation, communication 등
	Request(요청)	request
	Plan(계획)	plan, proposal, ideal, preparation 등
	Management(관리)	control, removal, preservation 등
	Evaluation(평가)	value, ability, qualification 등

기본 패싯	하위 패싯	소속 범주 예시
Activity (활동)	Activity(활동)	activity
	Programme & Projec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programme, project
	Study(연구)	study, problem, status, differential 등
	Extracurricular activities(특별 활동)	camp, travel, vacation
	Publication & Translation(출판 및 번역)	publication, translation
	Teaching & Training(교육 및 훈련)	teaching, training
	Fellowship(펠로우십)	fellowship
Event (행사)	Event(행사)	exhibit, award, recitation 등
	Meeting(회의)	meeting, seminar
Name of place (지명)	Country(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Germany, Switzerl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등
	Region(지역)	Asia, Seoul, Geneva, Incheon, Suwon, Paris, Chunchon, Kangwon 등
Year of production (생산연도)	-	1950,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Material type (자료 유형)	-	report, letter, book, document, glossary, periodical, photograph

4. 패싯 분류 체계 설계

4.1 패싯 정의 및 분류 기준

(1) 주제 분야 패싯: '주제 분야'는 기록물의 주제 중 분야적 속성을 지칭한다. 추출된 용어 중 추상적인 개념 또는 이론을 나타내는 용어를 분류하였으며 주로 학문 분야와 관련된 용어로 구성된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은 다양한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교육', '경제', '문화', '과학', '사회학', '법', '통신', '정치', '정보', '기술', '인문학'의 11개의 하위 패싯으로 세분되었다.

(2) 단체 패싯: '단체'는 주체가 되거나 또는 참여한 단체 및 단체명을 지칭한다. 단체의 유형은 기구, 기관, 단체, 부서,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하위 패싯은 '기관', '위원회', '회원국', '정부'로 세분하였다.

(3) 인물 패싯: '인물'은 '인물명' 또는 '인물 집단'을 지칭한다. '인물 집단'에는 인물이 가지는 직위 및 계급, 직업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이 포함된다. '인물 집단'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 집단 또는 활동의 관리자(Administrator)와 참가자(Participant)가 분류되었다. 또한 학생(Student), 노동자(Worker), 장애인(Disability), 연령대(Age group), 인종(Ethnic group), 신념 집단(Ideological group)을 포함한다.

(4) 재료, 설비, 자원 패싯: '재료, 설비, 자원'은 주제와 관련된 물질적인 재료, 설비, 자원을 지칭한다. '재료' 패싯에는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재료의 경우 교과서, 읽기 자료(Reading material)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과 같은 출판물 종류와 설문 자

료, 통계 자료, 원자료와 같은 연구 자료가 분류될 수 있다. '설비' 패싯은 주로 도구와 같은 장비, 시설을 포함한다. '자원' 패싯은 물질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위 범주의 예로 에너지 자원, 천연 자원 등이 포함된다.

(5) 행동 패싯: '행동'은 한국과 관련한 행동을 지칭한다. 주로 동작성을 지닌 명사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행동 패싯은 '원조', '요청', '개발', '계획', '참여', '관리', '평가'의 9개의 하위 패싯으로 구분된다. 행동 패싯의 용어들은 행동의 주체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6) 활동 패싯: '활동'은 한국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활동 또는 사업을 지칭한다. 하위 패싯은 활동의 유형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활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연구', '출판 및 번역', '교육 및 훈련', '펠로우십(Fellowship)', '특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펠로우십'의 경우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주요한 사업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의 경우 여름 학교(Summer school), 겨울 학교(Winter school), 방학(Vacation)과 같은 학교 교과 과정 이외의 활동을 분류하였다.

(7) 행사 패싯: '행사'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활동을 지칭한다. 하위 패싯으로는 '회의'와 '행사'로 구분하였다. '회의' 패싯에는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 업무 회의, 학술회의 등 다양한 유형의 회의들을 분류한다. '행사' 패싯에는 전시회, 공연, 발표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사를 분류하였다.

(8) 지명 패싯: '지명'은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칭한다. 하위 패싯으로는 '국가'와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지역'의 경우 도시명과 대륙명을 포함한 지역명이 분류되었다. 국내의 경우 서울(Seoul), 인천(Inchon) 등과 같은 도시명과 강원(Kangwon), 충남(Chungnam), 전북(Chunbuk) 등과 같은 지역명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또한 아시아(Asia), 유럽(Europe), 아프리카(Africa) 등과 같은 대륙명과 인도-태평양(Indo-Pacific)과 같은 해역 또한 포함하고 있다.

(9) 생산 연도 패싯: '생산 연도'는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로 지정하였다. 연도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되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 '현대'와 같이 시기별로 표현하거나, '한국 전쟁 시기', '전후 재건 시기', '경제 발전 시기'와 같이 성격을 부여하여 표현할 수도 있으며, '18세기'나 '19세기'와 같이 세기별로 또는 대통령과 결합하여 특정 시대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의 경우 연도가 1950년부터 1979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재건 및 발전 시기라는 하나의 성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주화하는 대신 생산 연도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10) 자료 유형 패싯: '자료 유형'은 기록물의 표현 형식이나 물리적 특성을 지칭한다. 자료 유형의 경우 기록물의 내용적 주제는 아니지만 이용자의 탐색 과정에서 간접적인 주제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접근점으로서 별도의 패싯으로 분류 및 범주화하였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경우 보고서, 편지, 연감, 문서류, 사전류, 정기간행물, 사진과 같은 자료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4.2 패싯 배열

본 연구에서는 기본 패싯을 Ranganathan의 P→M→E→S→T 순서로 배열하였다(〈표 6〉 참조). 다음으로 기본 순서 안에서 패싯에 해당된 용어의 총 빈도수에 따라 배열하였다. 자료 유형 패싯'은 간접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배열하도록 하였다. 하위 패싯은 일괄적으로 빈도수에 따라 배열하였으나 지명 범주 아래의 '국가'와 '지역' 패싯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순서를 고려하였다(Spiteri 1998).

4.3 기호 생성 및 조합 순서

패싯의 기호는 알파벳으로 표현하였다. 향후 새로운 패싯의 추가를 용이하게 다음 위하여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의 주제 항목을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기호를 생성하였다(정연경 2013). 10개의 기본 패싯의 경우 배열 순서대로 알파벳 대문자 A~H를 분류 기호로 부여하였다. 하위 패싯의 경우 기본 패싯의 분류기호에 알파벳 소문자를 조합하여 부여하였다. 하위 패싯 또한 배열 순서대로 소문자 a~k를 부여하였다.

4.4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 패싯 분류 체계(안)

결과적으로 〈표 7〉과 같이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패싯 분류 체계(안)을 설계할 수 있었다. 도출된 패싯을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싯들은 여러 조합으로 합성되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원조가 주제인 기록은 '주제 분야-교육' + '행동-원조'로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패싯이 나타내는 기호를 패싯의 배열 순서대로 조합하면 'AaBaEa'로 기호화할 수 있다.

단체 패싯의 경우 주로 분야 패싯, 행동 패싯, 활동 패싯과 결합되어서 기록의 주제를 표현한다. 또한 지명 패싯과 합성되어 소속 국가 및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행동 패싯은 어떠한

〈표 6〉 기본 패싯의 배열

기본 범주	기본 패싯	빈도수
P	Field(주제 분야)	2,453
	Organization(단체)	2,435
	Person(인물)	1,604
M	Material, Equipment, Resource(재료, 설비, 자원)	423
E	Action(행동)	2,939
	Activity(활동)	2,303
	Event(행사)	463
S	Name of place(지명)	208
T	Year of production(생산연도)	1,003
-	Material type(자료 유형)	626

〈표 7〉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1950~1979)의 패싯 분류 체계(안)

기호	기본 패싯	하위 기호	하위 패싯
A	Field (주제 분야)	Aa	Education(교육)
		Ap	Economy(경제)
		Ac	Culture(문화)
		Ad	Science(과학)
		AE	Social science(사회과학)
		Af	Law(법)
		Ap	Communication(통신)
		Ah	Politics(정치)
		Ai	Information(정보)
		Ap	Technology(기술)
		Ak	Human science(인문학)
B	Organization (단체)	Ba	Organization(기관)
		Bb	Commission, Committee, Council(위원회)
		Bc	Member states(회원국)
		Bd	Government(정부)
C	Person (인물)	Ca	Group of people(인물 집단)
		Cb	Person name(인물명)
D	Material, Equipment, Resource (재료, 설비, 자원)	Da	Material(재료)
		Db	Equipment & Facility(설비)
		Dc	Resource(자원)
E	Action (행동)	Ea	Assistance & Aid(원조)
		Eb	Development(개발)
		Ec	Participation(참여)
		Ed	Request(요청)
		Ee	Plan(계획)
		Ef	Management(관리)
		Eg	Evaluation(평가)
F	Activity (활동)	Fa	Activity(활동)
		Fb	Programme & Project(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Fc	Study(연구)
		Fd	Publication & Translation(출판 및 번역)
		Fe	Teaching & Training(교육 및 훈련)
		Ff	Fellowship(펠로우십)
		Fg	Extracurricular activities(특별 활동)
G	Event (행사)	Ga	Event(행사)
		Gb	Meeting(회의)
H	Name of place (지명)	Ha	Country(국가)
		Hb	Region(지역)
I	Year of production (생산 연도)	-	-
J	Material type (자료 유형)	-	-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 한국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주요 행동과 함께 서로간의 관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원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요청'이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활동 패싯의 경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활동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출판 및 번역', '교육 및 훈련'도 주요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활동 패싯과 행동 패싯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개발 + 프로젝트', '출판 및 번역 + 요청', '펠로우십 + 지원(원조) + 계획' 등 빈번하게 조합되어 표현된다.

패싯들은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5년부터 1957년까지의 3개년 계획의 경우 '1955' + '1956' + '1957'의 세 가지 시간 패싯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패싯의 합성을 통해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이 가지는 내용과 주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주제의 기록을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풍부한 주제 접근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1950~1979) 1,136건에 대한 패싯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 설계했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은 각종 외교 문서와 실무급 문서를 포함하며 유네스코의 역할, 원조,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중요한 1차적 자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체 중 일부를 수집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류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이 가지는 주제 중심 및 온라인 기반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제 표현력이 뛰어나고 온라인 환경에서 검색 보조 도구로서 강점을 가지는 패싯 분류 체계는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패싯 분류 체계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기존의 체계를 분석하여 임시 기본 범주를 설정하였다. 둘째, 기록물의 제목과 색인어에서 명사를 추출하였다. 셋째, 임시 기본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분류와 범주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최종적으로 패싯 요소를 도출해내고 도출한 패싯 요소들을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패싯 요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배열순서와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10개의 기본 패싯과 38개의 하위 패싯으로 구성된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 설계된 패싯 분류 체계는 패싯의 다양한 합성을 통해 기록물의 복합적인 주제 표현이 가능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 표현의 가능성은 곧 이용자의 다양한 주제 접근점 가능성으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 원문과 서지 정보에 직접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특정 기록물의 패싯 분류 체계 설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의 양이 한정적이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기호 체계를 도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분류 기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록물을 대상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패싯

분류 체계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보다 실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류 체계 개발 범위를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로 한정하였지만 패싯 분석과 패싯 분류 체계 설계의 방법론은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로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엔 산하 기관별로 수집한 기록물에 대해 패싯 분류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싯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소러스, 온톨로지, 패싯 기반의 색인 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여 패싯 내비게이션을 구축 하는 기반으로도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현민. 2017.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해외기록물 수집 체계 및 현황: UN기록물을 중심으로.『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한국국방정책학회 공동학술 워크샵』. 2017년 4월 20일. 서울: 숙명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박성우, 정대근. 201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373-406.

박옥남, 오삼균, 김세영. 2009. 문화예술교육 패싯 분류체계 설계에 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197-219.

박지영. 2010.『시소러스를 연계한 문학류 패싯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성효주, 이해영. 2017. 기록물의 검색 향상을 위한 패싯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65-188.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2020.『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결과보고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심지영. 2014. 패싯분석 기법을 적용한 방송자료의 내용 구조화에 관한 연구: 시사보도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정보관리학회지』, 31(3): 313-329.

오경묵, 이지수. 2017. 국내외 기관의 외교기록물 기술규칙 비교 분석.『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한국국방정책학회 공동학술 워크샵』. 2017년 4월 20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이원경. 2015.『패싯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검색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이은욱, 박희진. 2018. 이산가족 찾기 기록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31-257.

임지훈, 박태연, 김수정. 2017. 재난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패싯 분류체계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75-399.

정연경. 2013. 한식 정보 조직을 위한 패싯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5-37.

정해성. 2003.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73-296.

Broughton, Vanda and Aida Slavic. 2007. "Building a faceted classification for the humanities: Principles and procedures." *Journal of Documentation*, 63(5): 727-754.

Ferreira, A. C., B. C. M. S. Maculan, and M. M. L. Naves. 2017. "Ranganathan and the Faceted Classification Theory." *Transinformação*, 29(3): 279-295.

La Barre, Kathryn. 2010. "Facet analysi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4: 243-284.

Lancaster, F. W. 1991. *Indexing and abstracting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Library Association.

Ranganathan, S. R. 1960. *Colon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 House.

Spiteri, Louise. 1998. "A simplified model for facet analysis: Ranganathan 101." Canad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1-30.

Vickery, B. C. 1960. *Faceted classification: A guide to construction and use of special schemes*. London: Aslib.

[웹사이트]

Unesco Digital Library [online]. [cited 2019.10.31]. 〈https://unesdoc.unesco.org/home〉.

Unesco Thesaurus [online]. [cited 2019.11.9].
〈http://vocabularies.unesco.org/browser/thesaurus/e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Hae-Sung. 2003. "A Study on the Proposed Faceted Scheme for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73-296.

Chung, Yeon-Kyoung. 2013. "A Study on Structure of a Faceted Classification for Organizing Korean Foo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5-37.

Kang, Hyun-Min. 2017.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n Acquisition of United Nations Records about Korea.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

The Korean Society of National Defence Policy Joint Workshop. 20th April, 2017. Seoul: SIGG.

Lee, Eun Uk and Heejin Park. 2018. "A Study on a Facet-Based Ontology Design for Archival Records of Finding Dispers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231-257.

Lee, Won-Kyung. 2015. *A Study on Implementing the Faceted Navigation Interface for Searching Performing Arts Contents*. Ph. D. diss., Department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

Lim, Ji-Hoon, Tae-Yeon Park, and Soojung Kim. 2017. "Development of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Shared Use of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375-399.

Oh, Kyung-Mook and Ji-Soo Lee. 2017. *A Comparison on Description Rules for Diplomatic Records*.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 The Korean Society of National Defence Policy Joint Workshop. 20th April, 2017. Seoul: SIGG.

Park, Ok-Nam, Sam-Gyun Oh, and Se-Young Kim. 2009. "A Study of Facet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197-219.

Park, Sung-Woo and Dae-Gun Chung.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for Archives of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373-403.

Park, Ziyou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ing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Integrated with a Thesaurus for Literature*. Ph. D. diss., Department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Seong, Hyoju and Hae-young Rieh. 2017.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Facets for Improvement in Searching Records: Focusing o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2): 165-188.

Shim, J. 2014. "A Faceted Classification Analysis of TV content: Using New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313-329.

Sol, Moon Won. 2011.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2020. *The Final Report of Base Research for Korean Studies*. Seoul: SIGG.